

파리한글학교 교사매입추진협회 소식,

파리한글학교 마련을 위해 1989년 12월 말부터 교민 몇 분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교민발전을 위해 처음 한 모금이어서 교민들의 관심이 높아 모금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관리 잘못으로 1년 만에 모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교민 몇 분이 한인회관건립명분으로 모금을 계속하자고 재언했습니다. 그 뜻에 동감한 교민 33명이 모여 91년 중반부터 한인회관 건립모금을 시작하여 94년에 한인회관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한인회관 확장을 위해 모금을 계속하자는 재언에 장시간 논의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중단되었던 한글학교 건립모금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중단된 모금을 다시 하자고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7년 동안 한글학교를 운영해준 한인천주교단의 고귀한 뜻과 한글학교 건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음악인 두 분, 그리고 작품을 기증해준 작가44인의 뜻”을 받들어 한글학교 건립모금을 다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협회등록이 필요 했고, 그래서 1999년 9월 ‘한글학교 교사매입추진 협회’ 등록을 하고 모금을 계속했습니다. 현재 모금된 기금은 21만유로가 넘어섰습니다. 이 돈은 교민사회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고귀한 뜻이 담긴 귀중한 재산입니다.

한불수교한지 120년이 지나고 한인회가 구성 된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교민자산으로 2세를 교육을 위한 교실 마련은 차치하고라도 교민50명 정도모일 공간 하나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인을 열악한 교민 탓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나, 그보다도 큰 원인은 우리교민이 단합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근원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교민을 1만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70프로 정도는 유학생이고 30프로 정도가 교민으로 약 천세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교민이 단합해서 세대당 연간 3-4백유로 정도씩 2년 정도만 협조하고 기타 회사, 상사, 업체 지원한다면 모금된 액수의 상응하는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전당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단합하여 교민 발전과 2세를 위해 한국의 전당을 완성하는 데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노력한자만이 발전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시책도 노력

한 교민에게만 지원합니다. 지난해 말 모임에서 대사님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 모금협의 취지와 모금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취하신 대사님께서 찬사를 하시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년 초에 대사관으로부터 동포재단에다 모금 활동 지원금을 요청해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금과정을 기록하여 대사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12일 대사관으로부터 동포 재단에서 모금활동 지원금 4천달러가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고 대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활동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노력만이 발전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정부는 우리가 노력해서 모은 기금액수의 비율에 따라 지원액수가 결정됩니다. 이점을 고려 하시여 되도록 많은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대사님을 위시해서 물심양면으로 모금에 협조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전교민의 참여로 한국의 전당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앙망함이다.

2009년 5월 18일 모금협의회임원 일동

성 명 이 철 중  
생년월일 1928년 7월 3 일

교민사회의 활동 경력,

1991년 7월 평화통일 자문 위원으로 위촉 받은 후 프랑스 지회장으로 2년 임기5회연임하면서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리스, 4개국 지부장 겸직,

1991년 말 92년도 재불 한인회장에 선출 되어 최초로 한인회 자체로 회보를 만들고 3년간 모금하여 한인회관을 매입하여 94년 말 개관식으로 소정의 뜻을 이루고 재임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임,

1994년 말 파리한글학교 이사장에 선출 되어 임기2년 5회 연임 후 사임,

1999년 9월 파리 한글학교교사매입추진 협회 회장에 선출 된 후 임기 3년 연임으로 현재함,

이상과 가치 활동하였으며 모금 협회는 회장을 맡아줄 회원이 아직 없어 모금협회에 현재하고 있음,

2009년 1월 일

위 이 철 중